

이번주는 법무부가 정한 '세계인 주간'

# '광주의 이태원' 하남동 다문화 사회 일번지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하남공단이 위치한 광주시의 대표적인 공단 지역이다. 하남동은 광주시 5개 구, 91개 동 가운데 외국인이 가장 많은 광주 최고의 외국인 밀집지역이다.

5월 현재 하남동의 주민등록 인구는 2천583명, 외국인(1천406명) 까지 포함하면 3천989명에 이른다.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셈이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취업비자(E9)로 일시 체류하는 신분이어서 주민등록 인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 거주자가 늘면서 하남동 거리에는 광주의 다른 지역에 볼 수 없는 미국적 풍경들이 펼쳐진다.

동남아 출신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 축제' 등 각 나라의 민속을 엿볼 수 있는 축제도 잇따라 열려 다문화 교류가 되고 있다.

**필리핀·파키스탄 숍 등장**

'필리핀 숍(Shop)' '파키스탄 숍' 등 각 나라 물건만을 판매하는 가게도 증하고 있다. 하남동이 일종의 '문명의 용광로'가 되어 가고 있는 셈이다.

지난 22일 밤 9시 하남동 하남공단 3번 도로, 한산하던 오후와 달리 거리에는 아연 활기가 넘쳤다. 공단에서 일을 마친 다양한 피부색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들과 한 데 어울려 식사를 하려거나 호프집에서 술잔을 주고 받는 등 거리낌 없이 어울리고 있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건너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 노동자들이 꺼려하는 3D업종도 마다하지 않고 산업 발전과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000년대 초 이들이 들어오기 시

작할 무렵만 해도 지역민들 사이에 서는 마뜩잖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광산구 하남동 3번 도로에서 마트를 5년째 운영 중인 김종열(38)씨는 "처음에는 우리와 많이

지난 22일 밤 광주시 광산구 하남공단 3번 도로에 위치한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에서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TV를 시청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워리기자 jwvi@kwangju.co.kr

다르다는 생각에 거부반응이 들었지만 오래 지내다 보니 이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순수한 면을 많이 보게 된다"며 "한국 사람들은 '손님은 왕'이라는 인식 때문에 술 마시고 횡포도 많이 부리지만 외국인들은 아무리 술에 취해도 오히려 깨끗이 치워 가는 등 남에 대한 배려가 강하다"고 말했다.

**洞 인구 절반이 외국인**

우리보다 못 산다는 인식과 백인 우주주의에서 나온 왜곡된 인종편견 때문에 아시아 계열 사람들에게

냉소적이었던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한국 가게 일색이었던 거리도 '나국적' 상가로 바뀌고 있다. 필리핀 등 각 나라 물건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상점이 5년 전 1곳에 불과했지만 현재 5곳으로 늘었고, 외국인 PC방 등 그들만을 위한 전용 공간도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하남공단 D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린(35·중국)씨는 "주로 외국인 전용 마트나 전용 PC방에서 같은 민족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하는 등 시간을 보내지만 아직도 실만한 공간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천영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소장은 "외모지상주의와 백인우주주의에서 벗어나 이를 인격체의 하나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만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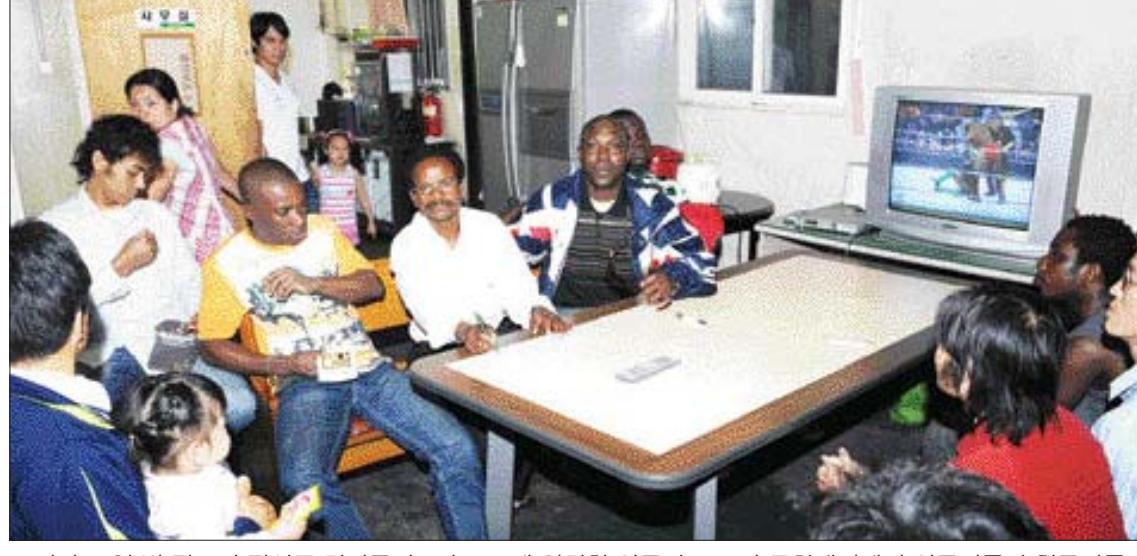
한편, 광주시가 발간한 '2007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광주시 전체 인구 142만460명 가운데 0.7%인 1만16명이 외국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기자 kps@kwangju.co.kr

2008년 5월 24일

제1806호

3



## 올해도 무더운 여름

장마 6월 하순 시작…태풍 2~3개 영향

## 광주시청 청소용역지 문제 극적 타결

해고자 17명 시 유관기관 청소용역사에 순차적 취업

광주시청 청소용역업체 해고 근로자 문제가 1년여의 진통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3일 광주 서구 광주리더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민주노총 광주지역 본부 및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이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7월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았으나 일시적 소강상태로 강수량의 지역 차가 클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일시적인 저온 현상이 나타나 기온변동폭 역시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상청은 또 "대기 불안정에 따른 집중 호우나 일시적인 저온현상 등 이상기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또 "대기 불안정에 따른

시 유관 기관 청소용역업체에 순차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키로 했다.

또 해고근로자 17명 가운데 5명이 광주시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 청소용역업체인 청돌사에 취업을 알선 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고 근로자 3명에 대해서는 오는 6월 말까지 광주시 유관기관에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되, 현 용역업체가 채용을 거부할 경우 내년 2월 광주시와 새롭게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할 업체에 취업될 수 있도록

권유키로 했다.

한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해고 근로자와 이를 대변한 공공서비스 노조가 광주시와 해고자 복직문제를 놓고 1년여 넘도록 시정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말 중재에 나섰다.

시청 청사관리 용역직원 17명은 지난해 3월 8일 시와 용역업체 간 계약만료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었고 1년이 넘도록 시청 앞 등 광주 곳곳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4·5·6월은 청소용역업체와

제3자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3자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